

●●●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 조용한 생산자 혁명이 시작되어야 한다



본고는 지난 35년동안 소비자들의 편에 서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온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을 만나 최근의 근황과 더불어 국산 먹거리 시장이 수입산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현 상황을 벗어날 해법은 있는지 알아보았다.

◀김천주 전)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현)농협 사외이사  
현)낙농진흥회 이사  
현)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 생산정보 소비자에게 먼저 알려라

김천주 회장은 보통 주부들이 생각하기에 닭은 쉽게 기르고 쉽게 잡아먹는 가축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금년초 양계업계에 큰 위기를 안겨

준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주부들의 시각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양계업이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을 새삼 느끼게 한 사건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산업화에 비해 계란·닭고기 유통 과정은 아직도

“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단계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견해이다. 계란은 생산지에서 소비단계까지 온도변화가 너무 심하여 신선도가 의심되고 있고, 닭고기 도계단계 가격이 바로 서지 않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산정보, 유통정보, 판매정보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관리하는 소비정책국(消費政策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집단이기주의를 버리고 경쟁력을 갖춰라

WTO, DDA로 우리 농업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소비자들은 우리 정부와 농민이 아무리 수입 개방을 반대한다고 해도 문호는 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농업이 살기위한 실리를 모색해야 한다.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계란·닭고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를 지속하여 국산 양계산물의 공급과 수요 기반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양계농가는 소비자들을 부단히 설득하여 안전성, 국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국산 양계산물을 소비해 달라고 홍보해야 한다. 즉, 생산자들은 양계산물 소비촉진 등 요란한 이벤트 행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신선한 양계산물이라는 것을 정확한 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연스럽게 양계산물을 선택해 먹을 수 있도록 조용한 혁명을 준비해 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 닭고기·계란 등급제, 소비자가 원한다

소비자에게 소비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계란·닭고기 등급제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농업이 살기위한 실리를 모색해야 한다.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계란·닭고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를 지속하여 국산 양계산물의 공급과 수요 기반을 마련해야...**

”

등급제를 통하여 양계산물 생산물의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등급제만이 안전과 위생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김회장은 생각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등급란의 확대가 계란 수입을 막는 길이라고 보았다.

아직 계란은 국내산을 100% 공급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등급란 표시에 원산지 표시를 덧붙여 국내산과 수입산을 확연히 구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국내 양계산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등급제가 성공하려면 소비자에게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등급판정 현장에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을 투입시키고, 생산, 등급,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런 모니터 요원은 일시적이 아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1~2년의 기간을 정하여 교체되어야 등급판정의 문제점과 장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회장은 양계산물 소비를 늘리고 양계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협력하여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정리 | 김종준 과장) 